姜시장 "계엄, 광주가 먼저 대응···5·18 정신 발현"

"NPU센터, 정부예산안용역비 우선 반영 군공항이전6자TF첫회의 이달중개최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대승적결단필요"

강기정 광주시장은 1일 12.3 비상계엄 1주년 을 앞두고 "제1야당(국민의힘)은 내란의 우두 머리 뿐 아니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 는 이들과 결별해야 한다"며 "힘들더라도 반 성하고, 아프더라도 결별해야 공당"이라고 강 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성과 사과, 내란 세력과의 결별은 '내란의 빙 산'을 녹이는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1년은 내란 세력과 국가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며 "윤석열과 소수 내 란 세력은 심판대에 섰지만 아직도 거대한 내란의 빙산은 수면 아래 남아 있다"고 지적

이어 강 시장은 광주의 역할에 대해 "1년 전 계엄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관 공동 연석 회의를 열었다"며 "되돌아보니 광주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5·18 정신의 DNA가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가 AI반도체(NPU)컴퓨팅 센터 유치와 관련, "정부 예산안에 정확히 사업 명으로 이름이 박혀 담기게 될 것"이라며 "우선 용역비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시장은 "국가 NPU 컴퓨팅센터는 광 주를 위한 사업이기에 지역이 특정될 지는 모르 겠지만 사실상 광주의 것"이라며 "이 밖에도 국 비사업으로 실속 있고 실효적인 (AI 관련) 사업 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미 있게 설명하겠다"고

또한 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6자 TF와 관련, "지난달 19일 4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대통 령실) 회담 당시 12월5일 6자 TF 첫 회의를 열기 로 합의했으나 장관 일정 조율 문제 등으로 날짜 를 다시 맞추고 있다"며 "조만간 열릴 것"이라

최근 시민사회 일부에서 제기하는 '민간공항 선(先) 이전은 섣부르다'는 지적에 대해 강시장 은 "군공항 이전보다 민간공항 이전이 더 빠르 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군공항 이전 사업이 광 주의 숙원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말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연내 출범 가능성 을 묻는 질문에 강 시장은 "이제는 (전남도의회 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5극3특 체계라 는 국책 방향에 맞게 가야 국책 사업 지원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에서는 광역연합 사무소는 전 남의 어디든 좋다고 했고 의원 구성도 전남도의 회 요구대로 12명까지 흔쾌히 동의했다"며 "올 해 안 출범은 사실상 쉽지 않겠지만 전남도의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16일까지 기다려볼 생 각"이라고 덧붙였다. /변은진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를 주재하며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사태 1년…경찰청장 대행, 대국민 사과

"위헌적 계엄에 경찰 동원돼" 인정 "위헌·위법행위 절대 동조 않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1 일 대국민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 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3일 밤 경찰은 국 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 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 였다"고 인정했다.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 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또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 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진심으로 사 과드린다"고했다.

유 직무대행은 발언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 나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경찰청 차원의 공식 사과는 계엄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동안 군과 함께 계엄에 깊게 관여한 핵심 기관으로 꼽혀왔다. 최근에는 경찰 내 내 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 F'를 본격 가동했다.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 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 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

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 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 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 겠다"고다짐했다.

아울러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 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 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 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 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발언을 맺었다. /연합뉴스

姜시장, TP원장 후보자 임명 고심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 적격'판정을받은김범모광주테크노파크(TP) 원 장후보자의 임명여부를 놓고고심하고 있다.

강 시장은 1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 늘 인사청문보고서가 도착했다. 내용을 읽어보 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 것인지 사실 잘 몰랐다"며 "최근 금융자료 5년치와 본인, 배우자, 자녀의 사본까 지 요구되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말했 다. 이어 그는 "최근 5년 간의 금융자료 제출은 필수 검증 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거친 산 하기관장들에게 물어보니 매우 불쾌했지만 분 위기 상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광주시는 전국에서 처 음으로 인사청문 제도를 전면 도입해 가장 많은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번에 문제가 된 만큼 추후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1일 "최근 충남 당 진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돼지농장과 관련 시설 예 찰·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방역대책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비상 방역 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경기도 파 주 돼지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올해 11월 까지 경기 25건, 인천 5건, 강원 19건, 경북 5건, 충남 1건 등 총 55건이 발생했다. 전남은 아직 까지 단 한 차례도 확진 사례가 없는 청정지역

전남도는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조기 발견을 위해 방역 취약 농장을 포함한 돼지 농장·축산 관련 시설·도축장 등 총 664개소에서 7 천678건의정밀진단검사를했다.

▶1면 '수완지하차도 노선'서 계속

결국 공사는 중단됐고 광주시는 기존 설계를 다시 검토하는 상황에 놓였다.

광주시는 다시 초기 계획에 가까운 우측 노선 을 복원해 풍영정천 하상 도로 지하로 우회하는 방안, 지하차도 하부를 직접 통과시키는 방안 등 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미 사업비는 급증했고 지 장물도 더늘어나 난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당시 기술자문

위원회에서 1-7차 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가운데 노선 변경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것' 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검토 부족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광주시의원은 "노선 변경 과정 에서 설계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다 반대했음에 도 불구하고 위험 요인들을 덮어둔 채 민원성으 로 노선 변경을 강행했다"며 "2호선은 계획 수 립,설계등모든과정이부실했던것"이라고비 판했다.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 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 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 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 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當 062)222-1095, 1096

구독신청 배달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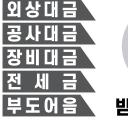
문 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 목사기□ 컴퓨터□ FAX
-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져(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A/S ▫임 대
- T.375-5880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빌려준돈

´투 자 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쌍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star 062)719-3380, 010-8678-4638

+

1) 꼬마상가 2억6,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보800월120만원(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종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